['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58)

제2부:베일벗는 일본군 실체-45 일제군사시설과 4·3 (4)와흘굴
천연동굴 개조…일본군 진지로

입력 : 2007. 03.08. 00:00:00

▲와흘굴 내부의 용암기둥. 일본군이 와흘굴을 진지로 활용하기 위해 천정과 동굴벽면을 깨트리는 바람에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일본군 200여명 주둔 동굴서 작업

4·3 당시 마을주민 일상적 피신처

태평양전쟁 말기에 제주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천연동굴마저 내부를 개조해서 유사시 진지로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제주시 조천읍의 와흘굴이다.

와흘굴은 동굴내부가 넓을 뿐 아니라 길이도 1.6km에 이르는 대형동굴이다. 동굴 내부에는 거대한 용암기둥을 비롯 생성물들이 잘 남아있어 가치가 크다. 하지만 와흘굴은 일본군이 주둔을 위해 내부를 훼손하는 바람에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일본의 패전 후 해방공간에 불어닥친 '4 · 3' 당시 와흘굴은 이 일대 주민들에게는 생명의 안식처였다.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 앞에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와흘굴을 피신처로 활용, 생명을 부지해야 했다.

와흘굴은 원래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입구가 작았다. 그런데 일본군이 동굴내부

에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입구를 넓혀놓은 것이다. 일본군은 또 굴내부에 비상출구를 만들기 위해 또다른 입구를 만든다. 그 흔적은 굴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왼쪽으로 형성된 가지굴 끝부분에서 볼 수 있다.

이 마을 주민 임완송씨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은 굴 입구를 만들기 위해 세 번에 걸쳐 뚫는 시도를 한다. 두 번째 까지는 실패하고 결국 세 번째 시도만에 입구를 뚫는데 성공했다. 일본군이 뚫은 굴 입구는 그 후 메워졌으나 바닥에는 깨진 돌덩이들을 볼 수 있다.

일본군은 또 다이너마이트 등을 동원해서 동굴천장과 벽면을 넓혔다. 서쪽으로 형성된 굴은 광장처럼 넓고 천장 또한 매우 높지만 바닥에는 떨어져나간 바윗덩어리들이 쌓여있다. 일제의 전쟁야욕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연동굴마저 훼손시켜 놓은 것이다.

와흘굴은 언제부터 일본군에 의해 훼손됐을까. 와흘리에 일본군이 주둔한 것은 1945년 봄 무렵이다. 처음에는 선발대 격으로 1개 분대 정도 병력이 주둔하고, 이어 1개 중대 병력이 마을 공회당 공터에 함바 형태로 초가를 짓고 숙영을 한다. 중대장은 마에다(前田)중위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일본군은 2백~3백여 미터 떨어진 와흘굴에 드나들며 굴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유사시에 병력의 피신처이자 저항진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굴 입구를 넓히고 주변에는 초가집과 모조전차를 만들어 위장했다.

▲일본군이 동굴내부에서 비상시 퇴로로 뚫은 입구가 현재 막혀있다.

와흘굴 일대에 주둔한 일본군은 어떤 부대일까.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시 일대에는 일본군 제96사단이 주둔한다. 병력이 9천여 명에 이르는 96사단은 제주시 산천단 일대에 사령부를 둔다. 그 예하부대인 보병 293연대는 제주시 명도암 일대에, 대대 병력은 그 인근인 봉개 일대에 주둔했다. 진드르비행장과 가까운 와흘에 주둔한 일본군은 293연대 예하의 대대에서 파견나온 부대로 파악된다.

와흘굴은 제주 주둔 일본군이 구축한 진지 가운데 천연동굴을 이용한 흔치않은 사례에 해당한다. 제주도 용암동굴의 수는 1백50여 개를 상회한다. 하지만 와흘굴처럼 일제에 의해 진지로 활용된 경우는 드물다. 오름이나 해안가에 구축된 대부분의 갱도진지와는 다른 유형인 것이다. 자연동굴을 최후의 저항진지로 활용한 경우는 오키나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와흘굴은 '제주4·3'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어지는 등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와흘굴 그 자체가 고난과 비극의 역사현장인 것이다.

한라일보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현장인터뷰/조천읍 와흘리 임완송씨]"중산간 마을중 최대 희생자 발생"

"1945년 봄 무렵입니다. 당시 2백 명 정도의 병력이 와흘리 공회당 공터에 주둔했습니다. 중대장은 마에다 중위로 불렸는데 민가를 빌려 밖거리(바깥채)에 살고, 부관으로 보이는 일본군은 중대장과는 조금 떨어진 민가에 살았죠."

이 마을 주민 임완송씨(1932년 생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570번지)는 일본군 주둔과 작업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일본군은 굴이 무너질까봐 나무기둥으로 받치면서 굴입구를 넓혔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99식 소총만을 지니고 있었고 와흘리 공회당 공터에 주둔했었습니다. 굴 주변에는 초가를 짓는 등 위장시켜 놓았죠."

와흘굴을 진지로 개조시키는 작업은 일제의 패망으로 중단된다. 하지만 와흘굴은 이어진 4·3 기간에 이 일대 마을주민들의 일상적인 피신처가 된다.

"'제주4·3' 당시 마을주민들이 와흘굴에 피신해 있다가 나와보니 마을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당시 바농오름으로 피신했던 임씨가 마을로 내려오자 마을전체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는 것. 4·3 당시 와흘 주민들의 희생자 수는 1백39명(2월 말 현재)이다. 제주도내 중산간 마을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임씨는 또 1945년 6월쯤(음력 4~5월 쯤) 진드르비행장 공사에 부친 대신 일주일 정도 노역을 하기도 했다. 당시 동원된 사람들은 원당봉 남쪽에 함바를 짓고 잠을 잤다. 함바는 20~30채 정도 됐는데 1채에 1백~2백명 정도가 잠을 잤다는 것. 함바는 돌담을 올린 초가집 형태로 가운데 통로와 양쪽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든 구조였다.

그 때 진드르비행장 활주로 공사는 80% 정도 진척된 상태였다고 임씨는 말했다. 활주로는 현재 삼양검문소에서 신촌사거리까지로 실제 비행기 이 · 착륙이 이뤄졌다.

진드르비행장 공사를 하면서 와흘리 등 이 일대 주민들은 '떼'(잔디)를 해서 날라야만 했다. 또 솔피낭(솔비나무)껍질을 말려서 공출하거나 고구마 조 등 농작물과 놋그릇, 심지어 소도 동네마다 반별로 공출을 당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라일보